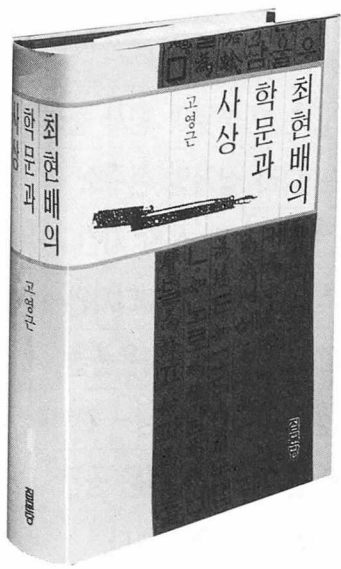


외솔의 커다란 발자취 좇은 한글학 탐구

《최현배의 학문과 사상》 펴낸 고영근 교수



해마다 한글날이면 습관처럼 우리말과 글을 되돌아본다. 무심코 쓰는 우리말의 쓰임과 갈래를 정연하게 이론화한 앞세대의 치열했던 노력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사는 듯하다. 서울대 고영근 교수(59, 국어국문학과)가 한글날에 즈음해 펴낸 《최현배의 학문과 사상》(집문당)은 그런 점에서 우리말을 오염시키고 있는 우리 세대에게 경종을 울린다. 더욱이 외솔에 대한 고교수의 연구는 한 개인의 업적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제 통치기간부터 1960년대까지 우리의 정신사, 국어연구와 국어운동의 특징을 구명하는 길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의 의의가 깊다.

기초자료 수집과 집필에만 꼬박 8년

“초고 작성부터 헤아리자면 열다섯해가 흘렀고, 본격적인 자료수집과 집필에만 8년이 걸렸습니다. 현대문법론을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당대 문법가로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던 김윤경, 이희승, 정인승, 최현배 등 네 문법가의 이론을 비교하는 기초작업을 시작했죠. 80년대 들어서 외솔의 문법이론을 더 정확히 분석할 필요성을 느끼고 젊은 시절에 정리한 자료들을 되돌아 보면서 그의 학문과 사상을 처음부터 다시 전면 분석하겠다는 계획을 다지게 됐습니다.”

막상 손을 대자 작업은 의외로 방대했다. 단행본만 20여종이 넘고 논문, 수필, 수상, 시조까지 400편이 넘는 데다 수정판을 포함

하자면 단행본이 30여종에 이르렀다. 원전과 초판본을 일일이 확인해내는 ‘꼼꼼한’ 기초 자료수집이 시작됐고, 요령부리면 끝이 없을 이 작업에서 고교수는 거의 완벽한 형태서지적, 문헌적 측면을 아우르면서 ‘외솔의 모든 것’을 이 책에 담을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이제까지 잘못 알려진 사실을 새로 밝혀 내기도 했고,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았던 《조선민족갱생의 도》의 1930년 초판을 우여곡절 끝에 국립도서관에서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기도 했다.

이 책에서 고교수는 외솔의 전생애를 다섯시기로 나눠 사상적 특수성과 학문성과를 바라보고 있다. 제1기(1922~34)는 학교에서 연마한 사상과 학문이 얼굴을 내밀고 우리 어문의 정리와 보급에 힘을 쏟던 시기. 애국계몽사상을 날줄로, 독일 이상주의 철학과 페스탈로치의 교육사상을 씨줄로 삼은 외솔의 독특한 실천적 이상주의가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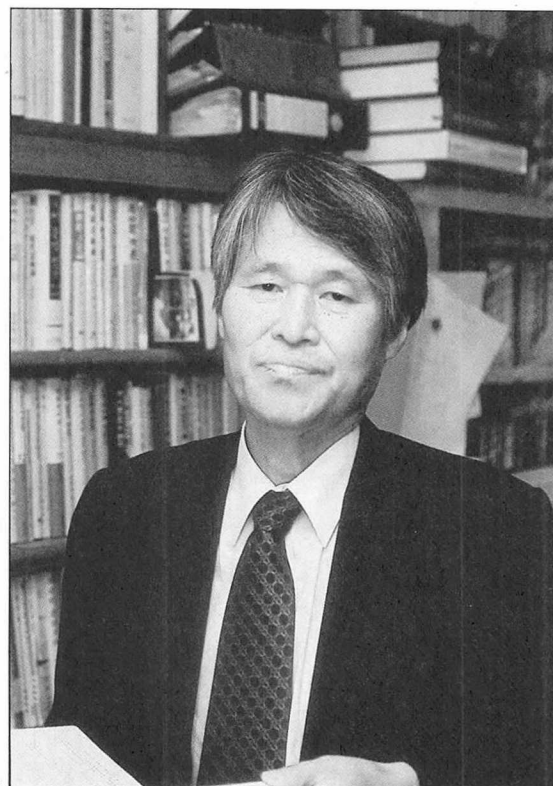
우리말 가로풀어쓰기에 관심을 보이고 우리말과 글에 관한 기초를 다진 끝에 제2기(1934~37)에 〈우리말본〉을 완성하기에 이른다. 유길준, 주시경, 김두봉에 뿌리를 둔 문장질서를 탐색하는 한편, 일본학자와 서양언어학자의 이론도 받아들였다. 제3기(1937~45)에 외솔은 일터를 잃고 조선어 학회사건으로 옥고를 치르면서 〈한글갈〉을 완성하고 청년시절부터 골똘히 다듬어오던 ‘가로풀어쓰기’ 이론을 그 나름대로 정립한다. 더욱이 일제말기에 한글사용의 역사와 변천을 체계화한 외솔의 업적은 평가할 만한 일이었다.

해방을 맞고 6.25를 거친 제4기(1945~55)에 외솔은 문교부 교과서 편찬의 행정을 주관하면서 자신의 문법체계를 거의 완성하기에 이른다. 모국어사랑을 강조했던 외솔의 주장은 제5기(1955~70)에 완숙한 사상으로 자리잡기에 이른다.

실천적 이상주의자였던 한글학자

“외솔은 단순한 교육가나 국어학자라기 보다는 사회사상가로서 품모가 강하게 비치는 ‘한글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을 먼저 세워놓고 하나하나 실천해나가는 ‘실천적 이상주의’ 체계 아래서 사회사상과 교육

“외솔은 단순한 교육가나 국어학자라기 보다는 사회사상가로서 품모가 강하게 비치는 ‘한글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실천적 이상주의’ 아래 어문학의 연구성과를 심화시켰던 외솔의 사회사상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 폭과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고영근 교수.

철학 어문학의 사상을 심화시켜 나갔던 것이죠. 실천성과 규범성을 앞세운 외솔의 사회사상과 교육철학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의 가로풀어쓰기, 문법론, 정음학, 정서법, 방언론의 연구성과에 대한 폭과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외솔의 학문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문법론이다. 〈우리말본〉을 발간삼아 〈한글마춤법통일안〉과 〈큰사전〉의 배정문법을 이룰 수 있었고, 해방후엔 박종우, 이민모, 정인승, 이희승, 이승녕 등의 문법에 폭넓게 반영됐다. 현대적 의미의 형태론이나 통사론 연구에도 끊임없는 영향을 미쳐 국어문법의 고전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을 정도다.

통일시대에 더욱 빛날 외솔의 사상

〈한글갈〉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해방후 남북의 국어학사나 훈민정음과 국어사 자료의 중요한 길잡이가 됐다. 홍기문, 김민수, 유창균, 강신항 등의 국어전용론과 언어가 민족과 국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해석학적 언어철학 역시 우리의 지성계에 끼친 영향이 넓다.

고교수는 그러나 외솔의 학문과 사상은

통일을 맞은 그날 더욱 큰 빛을 내리라 생각한다.

“민족과 문화, 교육과 언어가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절실하게 다가오는 통일시대에 대두되는 쟁점주제에 외솔은 거의 완벽하게 기초연구를 닦아놓았기 때문입니다. 한글전용론과 가로풀어쓰기가 그 대표적인 예이지요. 그런 점에서라도 이제껏 산만하게 진행됐던 외솔연구는 그 출발점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소신을 굽히지 않고 초지일관한 외솔의 성품도 고교수가 오랜동안 그를 탐구하면서 느낀 인간적인 매력이다. 자신의 학문발전을 위한 ‘고집’의 미덕은 고교수의 학문태도에서도 닮은 꼴로 나타난다. 일찍 국어학의 문법체계에 학문적 관심을 들여놓은 후 《중세국어의 사상과 서법》 《국어형태론 연구》 《우리말의 총체서술과 문법체계》 《표준중세국어 문법론》 《통일시대의 어문문제》 등 일련의 저서로 국어학의 심층을 파고든 고교수는 우리말에 대한 속 깊은 애정을 그렇게 풀어놓은 셈이다.

—김지원 기자